

내가 제일 잘났어!

독서
지도안

이은경 글
호랑쥐 그림



1.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물

• 어떤 동물을 가장 사랑하나요? 아래에 동물 이름을 쓰고, 그 동물을 그려 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을 ()입니다.



• 이 동물을 왜 가장 사랑하나요?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

.....

.....

2. 진짜 멋짐을 찾아서

- 책 뒤표지를 보고, 네 컷 그림 속 말풍선에 들어가 말을 적어 보세요.



- 내가 생각하는 진짜 멋짐이란 무엇인가요?

.....

.....

.....

- 내가 생각하는 나의 멋짐은 무엇인가요?

.....

.....

.....

3. 말로 그리는 미술 시간

- 미술 시간에 민재네 반 친구들은 즐겁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동물을 그립니다. 친구들은 어떤 동물을 그렸나요?

- 하얀 도화지를 채우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의성어와 의태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의성어에는 △를 의태어에는 ☆를 해 보세요.

들썩들썩	똑딱똑딱	조심조심	시끌시끌	삐죽삐죽
엮치락뒤치락	재잘재잘	뭉게뭉게	질질	폴짝폴짝
쓱쓱	알록달록	쫑긋	대롱대롱	벌떡
씨익	싱글벙글	보송보송	획획	오물오물
꾸벅꾸벅	파닥파닥	사뿐사뿐	살랑살랑	깜빡깜빡

- 의성어: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썹썹', '명명', '땡땡', '우당탕', '퍼덕퍼덕' 따위가 있다.
- 의태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 '아장아장', '엇금엇금', '번쩍번쩍' 따위가 있다.

4. 토닥토닥 마음 읽기

- 미술 시간에 민지와 민재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동물을 그립니다. 민지는 솜이, 민재는 티라노사우루스를 그렸어요. 반 친구들은 민지의 그림을 보며 듬뿍 칭찬해 주었어요. 친구들이 어떤 칭찬을 했나요?

.....

.....

- 반 친구들은 민재의 그림을 보고는 아무도 잘했다고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민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

.....

- 그런데 민재는 민지에게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말아요. 민재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

.....

- 민지는 민재의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민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

.....

- 내가 만약 민지라면, 민재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나요?

.....

.....

5. 마음의 소리를 찾아라!

· 미술 시간이 끝나고 민지와 민재는 둘 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특히 민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민재는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든 것 같았지요. 아래 단어 중에서 민지와 민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 주는 '기분 좋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쳐 보세요.

당황하다	고맙다	짜증이 나다	걱정하다	실망하다
무섭다	질투하다	감탄하다	심통 나다	서운하다
억울하다	자랑스럽다	사랑하다	조심스럽다	부럽다
어리석다	다정하다	수줍다	기쁘다	얄밋다
좋아하다	민망하다	부끄럽다	두렵다	깜짝 놀라다

마음돌보기

당황하다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고맙다 남이 베푼어 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짜증이 나다 마음에 탐탁하지 않아서 역정이 나다.

걱정하다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다.

실망하다 희망이나 명망을 잃다. 또는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마음이 몹시 상하다.

무섭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꺼려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겁나는 데가 있다.

질투하다 다른 사람이 잘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하다.

감탄하다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탄복하다.

심통 나다 마땅치 않게 여기는 나쁜 마음이 들다.

서운하다 마음에 모자라 아쉽거나 섭섭한 느낌이 있다.

억울하다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하다.

자랑스럽다 남에게 드러내어 뽐낼 만한 데가 있다.

사랑하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다.

조심스럽다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는 태도가 있다.

부럽다 남의 좋은 일이나 물건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그런 물건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

어리석다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다정하다 정이 많다. 또는 정분이 두텁다.

수줍다 숫기가 없어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끄럽다. 또는 그런 태도가 있다.

기쁘다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다.

얄밋다 말이나 행동이 약빠르고 밉다.

좋아하다 어떤 일이나 사물 따위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가지다.

민망하다 보기에 답답하고 딱하여 안타깝다.

부끄럽다 일을 잘 못하거나 양심에 거리끼어 볼 낮이 없거나 매우 떳떳하지 못하다.

두렵다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하다.

깜짝 놀라다 숨이 막힐 듯이 갑작스럽게 겁을 내며 놀라다.

6. 용기 내어 마음 전하기

· 평소에 입 밖으로 가장 많이 꺼내는 감정 단어는 무엇인가요?

①

②

③

④

⑤

· 평소에 친구나 가족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감정 단어는 무엇인가요?

①

②

③

④

⑤

· 민재는 용기를 내어 민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친구들이 자기 그림을 봐주지 않아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서 심술을 부렸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지요. 여러분은 친구에게 "미안해"라고 말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일 때문에 사과했는지 적어 보세요.

·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 사과하고 난 뒤, 내 마음은 어땠나요?

· 먼저 사과하는 것도, 또 그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도 정말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용기를 내어 사과했을 때, 친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 내가 "미안해"라고 말했을 때, 친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 그때 내 기분은 어땠나요?

7

8. 누구 말이 맞을까?

- 새로 전학 온 제임스는 못 하는 게 없는 멋진 친구입니다. 신기하게도 제임스가 자기 자량을 할 때는 친구들이 민재처럼 알미워하지 않아요. 제임스의 말에서 잘난 척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제임스는 민지와 민재에게 로봇 대회에 같이 나가자고 합니다. 셋은 고양이 얼굴에 티라노사우루스 몸통을 가진 솜티노를 만들기로 합니다. 하지만 로봇 모터를 어디에 달지를 두고 제임스와 민재가 크게 부딪혔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나요?



“그래도 내가 혼자 만든 그 로봇으로 학교에서도 상 받고 뉴욕시 전체 대회에도 나갔어! 모터는 다리에 달아야 조작하기도 편하고, 로봇이 잘 서 있을 수 있는 거야.”

“모터를 몸통에 달면서 조작하기 편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이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어. 대회 규정 좀 제대로 확인해라.”



제 생각에는

- 여러분도 친구들과 모둠 활동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달랐던 적이 있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9. 박사님의 흑역사

- 로봇 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하고 마음까지 상해버린 삼총사는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박사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부끄러운 과거(흑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박사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첫 번째 흑역사

두 번째 흑역사

- 박사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며 잘난 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박사님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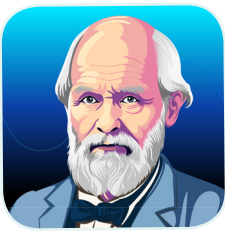
10. 위인들의 비밀 일기

- 완벽해 보이는 어른들이나 역사 속 위인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난 척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더 큰 것을 배운다는 점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두 위인의 이야기를 읽어 보아요.



세종대왕

1422년 세종 4년에 일본 국왕이 조선에 사절단을 보내왔는데, 규주라는 사신단의 대표는 세종을 알현한 자리에서 조선이 보관하고 있는 대장경을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대해 세종은 뜻밖에도 대장경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당시 일본은 불교국가였으나 조선은 송유역불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되지만, 자칫 국보인 팔만대장경판이 통째로 일본에 넘어갈 위기를 맞은 것이다. 당시에 바로 넘겨주지는 않았는데, 일본은 이듬해에 또다시 100명이 넘는 대규모 사신단을 파견하고 토산물까지 바치면서 팔만대장경판을 달라고 요구했고, 단식까지 하면서 억지를 부렸다. 세종은 일본 사신에게 "팔만대장경은 한 본뿐이어서 줄 수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거절했고, 대신 팔만대장경을 제외한 다른 3종류의 대장경판을 내어주었다.



찰스 다윈

찰스 다윈은 진화론의 창시자로 생물의 여러 이론을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발견한 종들을 먹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찰스 다윈은 그가 목록화한 새로운 종들을 주변 사람들과 같이 먹곤 했다. 하지만 1833년 크리스마스 저녁에 요리사는 레아라는 날지 못하는 커다란 새를 요리해 먹었다. 찰스 다윈은 그 새를 찾기 위해 몇 달을 노력했지만, 그것을 착각해 먹어버린 것이다. 이후 찰스 다윈은 일기에서 자신이 먹는 도중 그것을 알아차렸다고 회고했다.

- 위 두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

.....

.....

.....

11. 내 마음을 전해요

-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이 언제 행복해하는지 관찰해 볼까요?

내가 가장 친한 친구는요!

친구가 들으면 좋아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평소에 친구가 자주 하는 말도 적어 보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친구가 좋아하나요?

친구가 평소에 자주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친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마음 칭찬' 한마디는?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는요!

엄마, 아빠가 들으면 싱글벙글 웃는 말은 무엇인가요? 두 분이 자주 하시는 말도 적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 때 부모님이 좋아하시나요?

부모님이 평소에 자주 하시는 행동은요?

엄마, 아빠에게 드리고 싶은 '감사 칭찬' 한마디는?

12. 오늘의 감정 일기

- 민재는 ‘칭찬 릴레이 대작전’을 한 날, 잊지 못할 일기를 씁니다. 친구들과 나누었던 다정한 말들이 마음속에 커다란 감동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나만의 ‘감정 일기’를 써 봅시다.

오늘 가장 좋았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 보세요.

오늘 나에게 들려 주고 싶은 칭찬 한마디는?